

검찰 “판례 근거 뇌물죄 적용”…문재인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

전주시검 “직접 뇌물수수하지 않아도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文 변호인단 “사실 확인없이 기소…공소권 남용한 위법이다”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전주시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과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2018고합340)의 뇌물 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사건에서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의 특성에 비춰 이익제공자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사권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거론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법리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타이스타렛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것

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문 전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 없이 없던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모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스타렛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 내외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면직이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결론이다. 서씨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시검의 비박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려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면서 “전주시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비박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학생 이동권, 예산 타령만 할텐가

기자 노트



양재희
사회부 기자

“학교 가는 데만 2시간 30분이 걸린다? 몸이 불편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된 걸까. 놀라움과 많은 물음표를 안고 취재를 시작했다. 당장, 그들 학생들과 버스를 함께 타고 가려고 했다. 학교측이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 허락을 받았는데도, 첩벽을 쳤다.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통학자리를 뒤따랐다. 가다가 정거장에 서면 멈추고 어떤 학생들이 타는 지 눈으로 보고 영상으로 담았다.
영광에서 함평에 있는 특수학교로 통학하는 A군은 오전 6시 40분에 마을 입구에 멈추는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6시에 일어난다. A군을 태운 버스는 여러 군을 넘나들며 마을을 돌고 돌아 다른 학생들을 태우고 2시간 5분 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도 같은 방식이다. 매일 학교를 오가는 데만 4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한다.
승용차로는 30분이 안 되는 거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9년 간 장거리 통학을 감수한 건 A군 뿐 아니다. 전남지역 9개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백 명이 매일 2시간 넘는 장거리 등학교에 지쳐가고 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 화장실 가는 일이 없도록 물 마시는 것도 자제시킨다고 한다.
저상 버스로 아니고 리프트 시설도 없어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매일 손으로 들어올려 태우는 부모들과 통학 버스 기사들은 어떤가. 눈·비를 맞으며 휠체어에 탄 학생을 들어올려 버스에 태

우는 일을 매일, 10년 가까이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매년, 매 학기마다 노선을 늘려달라, 노후 차량을 개선해달라 요청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 교육감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예산 때문’이라는 말만 10년 넘게 들었다고 한다.
전남 9개 특수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 버스는 총 29대. 16대는 차다가 정거장에 서면 멈추고 어떤 학생들이 타는 지 눈으로 보고 영상으로 담았다.
영광에서 함평에 있는 특수학교로 통학하는 A군은 오전 6시 40분에 마을 입구에 멈추는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6시에 일어난다. A군을 태운 버스는 여러 군을 넘나들며 마을을 돌고 돌아 다른 학생들을 태우고 2시간 5분 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도 같은 방식이다. 매일 학교를 오가는 데만 4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한다.
승용차로는 30분이 안 되는 거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9년 간 장거리 통학을 감수한 건 A군 뿐 아니다. 전남지역 9개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백 명이 매일 2시간 넘는 장거리 등학교에 지쳐가고 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 화장실 가는 일이 없도록 물 마시는 것도 자제시킨다고 한다.
저상 버스로 아니고 리프트 시설도 없어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매일 손으로 들어올려 태우는 부모들과 통학 버스 기사들은 어떤가. 눈·비를 맞으며 휠체어에 탄 학생을 들어올려 버스에 태

교황 장례식 ‘경비 비상’…세계 170개국 사절단 참석 예정

토요일인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에서 열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을 앞두고 ‘경비 비상’이 걸렸다.
장례를 주관하는 교황청과 바티칸시국뿐만 아니라 로마시 당국과 이탈리아 정부 당국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비에 나섰다.
바티칸시국 현장에 가 있는 세라 레인스포드 BBC 기자는 23일 오전 성베드로 광장에 경찰 펜스와 장애물이 설치됐으며 광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이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라 고치 BBC 기자는 한 군인이 드론에 방해전파를 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장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으나, “드론 대비용”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 상세한 답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바티칸시국을 둘러싼 로마 전역과 그 주변에 드론 탐지와 격추가 가능한 방공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또 주변 공역에 비행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탈리아군 전투기가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필요시 방해전파를 송출할 대비도 되어 있다.
대테러작전 부대와 파괴공작 방지 부대에 배치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성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에 경찰관 2000여명을 배치해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후일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이런 순찰 경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광장에서 열릴 야외 장례행사에 세계 150~170개국 사절단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고 경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추모하는 미사가 광주 서구 쌍촌동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청 내 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사를 마치고 교인들이 교황의 영정에 헌화하며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 ‘전남매력 알리기’

팸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진행

전남도가 24일 개막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남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선수단과 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출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팸투어는 당일 코스로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여수 오동도, 담양 죽녹원, 장흥 우드랜드, 강진 가우도 등 권역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전남도는 또 생활체육대축전 주경기장인 목포 경기장에 29개 부스를 설치, ‘문화기행’과 ‘민간정원’, ‘가고 싶은 섬’ 등 테마형 관광지와 2025 국제 남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대규모 이벤트를 홍보한다.
주 경기장 외에도 경기가 열리는 각 시군에서

음악공연과 버스킹, 소규모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해 전남을 찾은 이들에게 전남의 멋과 정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들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도록 전남의 맛과 멋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전남도의 ‘5월! 전남 방문의 달’ 프로모션도 함께 열어 5월이 전남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단이 참가해 41개 종목에 걸쳐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목포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정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분산돼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

양

신

공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5-922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망추정(발생)일시	사망원인	사망장소	비고
			주소				
박주덕	남	37.10.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00의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길 31 (송촌동)	2025.4.11. 02시 02분	병사	의료기관 (일등요양병원)	

2. 발생사항
: 의료기관(일등요양병원)에서 병사, 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무연고 장례

3. 처리방법: 화장 후 봉안

4. 화장일자: 2025. 4. 16.

5. 봉안기간: 5년 (2025. 4. 16. ~ 2030. 4. 15.)

6. 화장 및 봉안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 무연고안치실
광주영락공원 추모관 ☎ 062)572-4384~6

7. 연락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지지원과
- ☎ 062)960-8346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행정복지센터
- ☎ 062)960-7846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호진(770312-1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대호길 76-8, 111동 1504호 (대호동,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호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3197호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광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25일

- 상속인: 1. 김관선(540705-1XXXXXX)
나주시 대호길 76-8, 111동 1504호 (대호동,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 2. 양상순(561030-2XXXXXX)
나주시 중앙로 10(남대동)

- 신고기간: 2025. 4. 25. ~ 2024. 7. 5.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김관선의 주소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안 신 571-7658	• 오 치 266-78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2352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윤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8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